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⁵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⁶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⁷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20:5-7)

겸손과 복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흉내 내는 몸짓에 불과하다. 그러한 몸짓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오는 생명은 오직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합당한 까닭은 마음

이 진정으로 겸손해야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어느 것도 방해할 하지 않기 때문이다. (AC.8873)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873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at it denotes Divine worship, is because humiliation and submission are essentials of worship, for worship without them is not worship, but gesture in imitation of those who are in the truth of worship; in which gesture there is nothing of life, for life from the Lord flows in solely into a humble and submissive heart, because such a heart has been fitted to receive. That such is the case is because when the heart is truly humble, nothing of the love of self and of the love of the world stands in the way.

이는 오늘 본문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

출20:5-7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에 관한 주석 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Thou shalt not bow down thyself to them, nor serve them.)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이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지혜를 믿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이 들어 있을 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

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절을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보다 위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긴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 덕목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진리 앞에 겸손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에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새긴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 때는 마치 끝도 없는 절벽 위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닌데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신앙생활에서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가 들 때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있는가? 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서툴거나 옳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도 순수해야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새 교회에서는 합리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합리적이란 말은 진리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진리 앞에 더 겸손해지도록 이끄십니다.

5절 후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

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주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질투하거나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것처럼 말씀에서 표현하는 이유는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질투하시고 성을 내시며, 보복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언제나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때 악인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질투하고 이를 갈며, 또 다른 보복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악인들의 내면에 있는 질투와 분노, 미움과 복수심을 주님께 그대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사

출20:5-7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실과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악한 사람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 자체이신 분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악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는 정반대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해 왜곡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마치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도 왜곡합니다. 주님이 선을 주실 때 악으로 바뀌어서 받아들이고, 진리를 주실 때에도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좇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선과 진리를 주실 때 반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선하고 진실한

것이 사라지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문 5절 중간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갚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악이 자기 자신에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짐승을 잡을 때 부메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도구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그것을 타격한 다음에는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악의 속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다른 데로 가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갚으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진 사람이 스스로 죄의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를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저주가 자손 대대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뜻은 그게 아닙니다. 본래 아버지는 선을 뜻하고, 아들은 선에서 비롯한 진리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아버지는 악을 뜻하고 아들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을 뜻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 바탕에 반드시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아들이고 거짓에 선행되는 악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닥칠 불운을 말합니다. 그 불운이란 어떤 것입니까? 악이 계속해서 거짓을 낳고, 그렇게 해서 악과 거짓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사 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서 삼(3)이란 수의 속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거짓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처음 한 거짓으로부터 마지막 거짓에 이르기까지 서로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은 점점

늘어나고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죄가 삼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의 속뜻입니다.

또 ‘사대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거짓들이 악과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4)는 이(2)의 배수이고, 그러므로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좀 느슨한 것이고,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거짓의 바탕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항상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볼 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를 것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즉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흘러 들어갈 수 없고, 그러므로 악과 거짓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이며, 그리고 그 악과 거짓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 즉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믿는 것이 얼

출20:5-7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갚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이라는 말씀은 앞에서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과 서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아귀가 맞는 것처럼 서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과 관련이 있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선과 진리의 결합으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선과 진리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또는 세속적 이득을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신성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선과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진실한 것들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선하고 진실한 것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천 대까지 베푸느니라’** 하십니다. **‘천 대’**는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니다. 주님은 자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선하고 진실한 것을 그 자체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7절에서 주님은 세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7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표현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그의 생김새나 겉모습만 떠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사상, 신념 같은 것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그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관련된 모든 진리와 선이 여호와와 그의 본질이며 이름입

니다.

천국의 비밀 8882번 글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신앙에 속한 선과 진리를 모독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과 진리를 모독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서 진리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건한 삶을 살기는 하는데 내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 진리에 반(反)하는 삶을 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 싸운다면,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진리를 모독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집을 나갔던 귀신이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

출20:5-7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귀신이 집을 나가는 것’은 처음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고 이것이 참된 진리이구나! 라고 믿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확실히 믿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그때 ‘주님, 저는 힘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싸운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 쾌락이 좋아서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나갔던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를 모독하는 일이며,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죄의 유혹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쾌락들이 불결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리를 모독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사는 데 내적으로는 진리를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가끔 주변을 보면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경에서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룹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진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겸손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자기가 이룬 것들이 주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사람을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는 아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론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자아에서 나온 것으로 악을 끊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죄 없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모두 주님에 대한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겸손과 순종의 예물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 애정이 없으면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없고 이웃에게 순수한 뜻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또 진리를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

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렘10:14)

아멘

원본

2017-04-09(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17(D3)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